



심판테스트 부정 사건을 6개월이 지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스포츠동아 DB

‘심판 테스트 부정’ 손 놓은 축구협회

사커 토크

| 원칙없는 행정...무능인가, 공공이인가

5월에 벌어진 사태 6개월째 흐지부지 덮으려다 뒤늦게 10월에야 진상조사 심판위원장 지시·은퇴심판 개입 밝혀 특별징계위 열었지만 결론은 또 미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피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합시다.”
대한축구협회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블미스런 일이 생기면 빨리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제대로 조사해 잘못은 인정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가장 안 좋은 대처는 밖으로 알려지는 게 무서워 쉬쉬하고 감추는 것이다. 그러면 일은 더 커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지금 축구협회 행정이 딱 그렇다.

5월 초 대전에서 심판 체력테스트가 열렸다. 400m 트랙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150m(30초)뛰기와 50m(35초)걸기를 번갈아 최소 20회 뛰어야 합격이다. 2011년까지 K리그 전임심판이었지만 이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A심판이 참가했다. A심판의 친한 후배 B심판도 응원 차 왔다. 문제는 A심판이 속한 그룹 테스트가 시작되기 직전 발생했다. B심판이 코스에 난입해 빨리 달리는 구간이 단축되고 천천히 달리는 구간이 늘어나도록 일부 트랙의 큰 위치를 조정했다. 이대로 테스트가 시작됐으면 A심판은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장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고, B심판은 퇴장 당했다. 이후 거리측정기를 이용해 큰 위치는 원위치 됐고 테스트는 정상 진행됐다. A심판은 결국 탈락했다.

협회가 주관한 테스트에서 명백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그런데도 협회의 사후조치는 어처구니없다. A심판은 이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A심판이 어떤 이유로 그런 대담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혹은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그런데 협회는 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 심판들부터 숙덕대기 시작했다. 모 국제심판은 “심판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이런 데도 협회는 눈을 감았다. 알면서도 묵인했으면 방조행위고,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다. 심판을 넘어 협회 임직원까지 술렁였다. “협회 고위층이 심판위원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졌다. 스포츠동아가 이런 행태를 보도(9월27일자 8면 참조)한 뒤에야 협회는 부랴부랴 10월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는 심판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위원장이 협회 이사 신분이라 현 징계위에서 다를 수 없어 이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가 꾸러졌다. 특별징계위는 심판위원장과 B심판을 비롯해 5월 당시 현장에 있던 10명의 감독관을 모두 조사했다. “부정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는 심판위원장과 “위원장이 시켜서 했다”는 B심판의 주장이

엇갈리자 대질심문까지 했다. 일부 감독관 입에서도 “심판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B심판 외에 B심판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한 C전 심판이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는 22일 특별징계위를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은 미뤄졌다. 협회 인사팀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왜 미뤄졌는지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건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 협회 직원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 물으면 입을 닫는다. 탄식만 나온다. 특별징계위에 속한 고위 관계자는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올 3월 취임한 정몽구 축구협회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였다. 그러나 협회가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 회장이 아무리 ‘원칙’을 강조하면 뭐하나. 실무진이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협회의 무능 행정은 여전히 도둑이 표다.

윤택서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관중수 1위가 수원의 존재 가치는 아니다



‘뽕뽕 얼어붙은’ K리그 수원만이 녹일 수 있다

올 48억 이어 또 30억 삭감 소식에 우려 목소리

수원 삼성의 올 시즌 점수는 낙제점이다. K리그 클래식과 FA컵 타이틀은 일찌감치 놓쳤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못 땀다. 실패했다.

그래도 열기는 지켰다. 수원은 홈 18경기에서 33만 1237명의 관중으로 1위다. 경기당 1만8402명. 홈 19경기 31만5540명을 끌어들이 경기당 1만6607명을 찍은 2위 FC서울과 격차도 크다. 총 관중 백분율로 보면 수원의 관중 점유는 16.8%에 달한다. 희망은 또 있다. 지겹던 ‘뽕 축구’와 이별이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짜임새 있는 패싱 플레이로 ‘불만한’ 축구를 만들었다.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건들을 전열에 포함시켜 새 판을 짜다.

하지만 수원이 할 일은 관중 1위, 유소년 정착만 아니다. 수원은 모든 부분에서 K리그 리더였다. 성적 역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처럼 맨 꼭대기였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최근 축구계 소식들은 우울하다. 겨울이적시장은 열리기 전 예외 얼어붙었다. 선수 공급은 있는데, 정착 수요는 없다. 돈이 없어서다. 대부분 팀들이 모기업으로부터 운영비 삭감과 동결을 통보받았다. 이미 올 시즌 운영비 중 48억원을 삭감한 수원은 내년에도 30억 원을 또 줄인다. 선수 10여 명이 추가 정리된다. 수원은 고종수 코치와 김대의 스카우트가 브라질에 머물며 용병을 모색하지만 맘값 이권이 커 영입이 어렵다.

사실 수원 구단의 모기업 삼성전자와 불경기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선 올해 초 팀별 연봉순위가 공개된 후 “연봉 1위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며 운영비 삭감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수원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 연봉이 높아 삭감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수원이 나서서 얼어붙은 K리그 시장을 살린다. 팀도 살 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엮을 수 있다. 총 관중 1위 수원 응원단은 ‘바뀌고’ ‘희망찬’ 팀 외에도 ‘성적도 좋은’ 수원을 볼 자격이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설기현·김남일 이젠 나가줘” 인천 구단의 베테랑 예우법

조정 과정도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 2년간 안정된 전력 이끈 공로 헛되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2002한일월드컵을 빛낸 ‘베테랑’ 김남일(36·사진 왼쪽)과 설기현(34·오른쪽·이상 인천 유니타이드)이 현역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인천구단은 10월 말 두 베테랑에게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둘은 올 시즌을 끝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된다.

조동암 사장은 두 선수를 만나 “현재 연봉 수준으로는 재계약이 어렵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재계약 과정은 구단과 선수의 연봉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해 나가면서 합의를 이뤄 나가야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둘은 작년 인천에 입단했다. 허정무 전 감독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간곡한 설득이 있었다. 시즌 초반 허 감독이 자진사퇴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두 베테랑은 무게중심을 잡으며 힘겨웠던 팀을 일으켜 세웠다. 19경기 연속무패(12승7무) 행진을 달렸고, 올 시즌 상위그룹 진출의 공을 세웠다. 김남일은 2시즌 동안 정규리그 58경기 4도움을, 설기현은 65경기

11골5도움을 올렸다. 경기 외적으로도 팀 체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며 어린 선수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인천은 내년 구상에서 이들을 핵심 전력에서 배제했다. 이번 재계약 논란이 단적인 예다. 고액 연봉과 리빙딩을 이유로 이들을 내치려는 모습은 흡사 투사구맹의 고사를 보는 듯 하다. 토끼를 잡으며 쓸모없어진 사냥개를 살아먹는다는 중국 고사다.

김봉길 감독의 대응도 아쉽다. 최근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프로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시민구단의 한계다”고 말했다. 논란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김 감독은 작년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감독대행 딱지를 땀다. 두 베테랑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며 2년 연속 안정된 전력을 꾸렸다. 그는 평소 인터뷰에서 “두 베테랑이 훌륭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김 감독이 둘을 핵심 전력으로 생각했다면 직접 잔류 요청했는지 되묻고 싶다. 구단 관계자는 “시즌 중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상과정에서 잔류와 이적, 지도자 연수 등 다양한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심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 @parkjyoon



성남시민구단 창단 ‘숨통’

성남시의회, 지원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성남시민구단(가칭)이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2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었다. 시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오른 조례안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 속에 창단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타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조례안은 이미 한차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21일 상임위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와 찬성표가 같은 숫자를 이뤄 가부동수(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부결로 처리)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조례안을 저지시켰다. 원안이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여겼던 성남시와 지역 축구인들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23일 열린 성남 일화와의 마지막 홈경기 때 서포터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렸지만 타결은커녕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오후 3시로 정회됐던 본회의는 거듭 지연됐다. 이제껏 시장이 나섰다. 시민구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문을 작성해 새누리당과 언론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겠다”고 진정성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의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시장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민주당 소속 시의회의장 및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시도했다. 극적 타결을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준비시켜 놓았고, 결국 직권상정하며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